

# 증권 vs 자산운용 대리전에 민·관 대결 성격까지

(나재철)·(정기승)

## 차기 금투협회장 관전포인트

###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신입서 CEO 타이틀 쉰 '증권맨'

###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

'감독당국' 경험 금투업계 전문가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는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 간 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상대진영의 표심을 잡을 지가 관건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과세 체계 개편, 기금형퇴직연금 등 계류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투자협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59)과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65) 등 2명이다. 금융투자협회 회장후추천위원회(회추위)는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협회장 후보자 공모를 받는다. 회추위는 공모 마감 후 입후보자를 공개할 방침이다.

#### ◆ 증권 vs 자산운용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유력인사가 없는 만큼 이번 협회장 선거는 나재철 사장과 정기승 부회장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맞붙는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나재철 사장은 30년 넘게 금융투자업계에 몸을 담은 정통 '증권맨'이다. 지난 1985년 대신증권에 입사해 35년간 자산관리(WM), 홀세일, 투자은행(IB) 영업 등을 비롯해 기획, 인사 등 증권사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지난 2012년부터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는 말단 신입사원에서 최고경영자(CEO)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증권업계 신화'다.

한 증권업계 고위관계자는 "나 사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업계에 많지 않은

것"이라면서 "친화력 있는 너그러운 리더십이 그의 장점"이라고 했다.

또 금융투자협회 임원(회원이사)을 역임한 만큼 내부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홀세일 영업을 한 경력은 자산운용업계를 이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은 '감독당국' 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다. 지난 1978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국장, 은행감독국 국장 등을 거쳤다. 이후 아이엠투자증권 부회장, 현대증권(현 KB증권) 상근감사위원, KTB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증권사, 자산운용업을 모두

경험했다. 2016년 7월부터는 KTB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지난해 3월 KTB자산운용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처럼 정 부회장의 장점은 40년 가량 관과 업계를 두루 거쳤다는 점이다. 인맥도 풍부하고, 업계 사정에 밝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은 업계 경험이 풍부하고, 총명한 스타일이다"고 말했다.

아직 협회장 선거를 2파전으로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마감일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어서다. 물론 유력후보였던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병조 전KB증권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간접적으로 출마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이다.

#### ◆ 표 대결은 어떻게?

공모가 마감되면 후추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최종 후보자는 금투협 회원사인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부동산신탁사 등 296개사가 투표권을 통해 회장을 선출된다. 정회원과 과반의 출석으로 임시 총회가 열리며 출석한 정회원사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협회장으로 당선된다.

다른 자리와 달리 금투협회장은 '나

하산'을 배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과정)를 갖췄다. 협회 회원들의 표만이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무기다. 때문에 후보들은 회원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표를 모아야 한다.

다만 협회 분담금이 높은 증권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단점이다. 금투협 회장 선거는 정회원사 1사당 균등하게 1표씩을 행사하는 의결권을 40%만 반영한다. 나머지 60%는 회비분담율에 비례해 의결권을 각 사별로 나눠준다. 100개의 표 중 60개의 표가 회비를 많이 내는 증권사의 몫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역대 금융투자협회장은 모두 증권사 대표 경력을 갖춘 인사였다.

그렇다고 자산운용업계의 표를 무시할 수는 없다. 회원사 294개사 중 222개사가 자산운용사다. 40%의 의결권 중 76%가 자산운용사의 몫이다. 자산운용업계의 표심만 잡아도 안정적이다.

업계에서는 "속도감있게 추진되다 멈춘' 자본시장법 개정을 힘있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대표적으로 금융과세 체계 개편과 기금형퇴직연금 도입이다. 두 사안은 증권업계, 자산운용업계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반도체株의 귀환... 증권가 "내년증시 견인"

데이터서버 수요확대 등 수급 늘 것  
산업 3대 혁신전략 등에 예산 늘려

반도체 관련 주가 내년 증시를 견인할 주도주가 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한목소리로 내년 1분기부터 반도체 업종이 흐름을 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데이터 서버와 관련된 설비 증대나 5세대(5G) 이동통신 수요 확대 등으로 수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5G 생태계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연말까지 국내 5G 가입자 수는 약 4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기업 애플 역시 내년 상반기에 5G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질 경쟁은 내년에 한층 더 달아오를 예정이다. 정부도 지난 9월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과 5G 플러스 전략

등을 위해 2020년 예산을 크게 늘렸다.

5G는 반도체주 상승의 핵심 열쇠다. 5G 환경이 조성되면 스마트폰 메모리의 용량이 커져 반도체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 확대는 단기의 회복을 의미한다.

올해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이지 않았

다. 1일 애플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업체들의 총 수익은 25조원 가량. 60조원에 이르며 호황기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치다. 많은 반도체 업체가 부쩍 늘어난 재고 탓에 대규모 설비투자보단 공정 최적화에 주력했다.

상황은 달라졌다.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하며 대외적인 악재 요인도 줄었음 뿐더러 5G 환경이 조성됐다.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반도체 업황이 이미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은 내년에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내년 2분기까진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지속하고 있다"며 "낮은 주가 레벨과 수급상황, 낮은 밸류 등을 고려할 때 밸류 정상화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5G 시장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서버 수요의 회복과 PC교체 수요 역시 반도체주가 상승할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지난 주말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보다 1.95% 하락한 5만300원에, SK하이닉스는 2.29% 떨어진 8만900원에 장을 마쳤다.

/송태화 기자 alvin@

## 국내 주식형펀드 1.13% 올라 '상승세'

### 주간펀드동향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11월22~28일) 국내주식형펀드는 1.13% 올랐다. 액티브주식중소형(1.04%), 인덱스주식코스피200(1.06%) 등 모든 유형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인덱스주식코스피200(5767억원) 유형에서 큰 규모 자금 유입이 이뤄지면서

서 전체 순자산은 974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50%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북미지역의 펀드가 1.79%로 수위에 올랐다. 미국 증시가 연이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주식형에서는 전주에 이어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한주간 130억원이 유출됐지만 수익률 상승으로 순자산은 1110억원 늘었다.

해당기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액티브주식테마형인 '신영밸류우선주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3'(3.44%)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은 지난 주에 이어 헬스케어섹터 펀드인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C-P'(3.48%)가 수위에 올랐다.

한편 한 주간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05% 상승한 2118.60포인트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한 전망이나 관적으로 반전한 것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료 연장한다는 소식이 상승했다.

/손엄지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4일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1순위 청약 실시한다.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리얼투데이

## 이번주 전국 13곳서 총 6400가구 분양

### 분양캘린더

**롯데건설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660가구 일반분양... 전매제한 없어

**영무토건 '서대구 KTX 영무예다음'**  
945가구 일반분양, 서대구역 인접

12월 첫째 주에도 아파트 6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12월의 첫 주 청약접수는 서울에선 오피스텔이, 수도권에서는 검단신도시 물량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방에서는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등이 청약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5개 지역에서 문을 연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13곳에서 총 6419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20곳, 계약은 15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전국 7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오는 4일 강원 춘천시 약사동 156-1 일원 약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7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660가구(전용 59~84㎡)를 일반에 분양한다. 춘천초와 춘천중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지역 명문인 춘천고, 성수고 등도 인근에 위치해 전매제한이 없다.

영무토건은 오는 5일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3구역 재정비촉진지역에 들어서는 '서대구 KTX 영무예다음' 1순위 청약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4층, 13개동, 전용면적 57~101㎡ 총 1418가구 규모다. 이 중 94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는 2021년 운행하는 서대구역(예정)과 인접해 있다. 이 현 체육공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도 인접해 있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45-40 일대에서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9개동, 총 79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114㎡ 31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규성 기자 peace@